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홍필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훈 회순 박순철

순천시, 설 연휴 관광객 증가

주요관광지 8만2천명 다녀가...25.4% ↑

특색있는 이벤트·다채로운 체험행사 마련

순천시가 금년 설 연휴기간 동안 순천만국가정원 비롯해 주요관광지에 8만2천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25.4% 증가했다. 주요 관광지별로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포함) 32214명, 낙안읍성 25716명, 드라마촬영장10411명, 송광사4410명, 선암사2460명이 방문하는 등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순천의 대표 관광지인 순천국가정원과 낙안읍성 등에서 즐거운 연휴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순천시에서는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다녀 갈 수 있도록 관광지별로 특색있는 이벤트와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마련하여 관광객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선사했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숲을 이용한 점보기, 소원 엮서 쓰기, 어린이 한복체험, 연날리기 체험 등이 인기를 끌었고, 추억이 묻어있는 드라마



촬영장에서는 옷놀이, 비사치기, 추사로잡았다. 또한 전통이 살아있는 낙안읍성에서는 판소리, 가야금병창, 민속무용

등 국악한마당과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등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즐거운 한 때를 보내기도 하였고, 그 외에도 천년고찰 송광사와 선암사 등에도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는 방문객들이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순천시는 지난해 9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감에 따라 2018년 관광객 천만시대 실현을 위해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작년 인기를 끌었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축제의 불거리를 더욱 다양화하고 그 외에 문화재 달빛이행, 순천만국제교향악 축제, 세계동물영화제, 정원산업디자인전, 푸드아트페스티벌, 팔마시민예술제, 낙안읍성민속문화축제 등 다채롭고 차별화된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지난해 대비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천=김종영 기자

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개소식 갖고 본격 가동

순천대학교(총장 박진성)는 최근 여성가족부와 순천시가 지원하는 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센터장 이신숙, 사회복지학부 교수)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했다.

이날 행사는 박진성 총장과 조충훈 시장을 비롯해,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 순천교육지원청 윤종식 교육장 외 대학 보직교수와 교직원, 지역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로 다문화가족 및 비혼가족, 3대가족, 장애인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

족과 시민들이 함께 가족지원 의견을 종이비행기에 담아 전달하는 가족지원정책 의견 전달식이 있었다. 또한, 신년운세를 알아보는 포춘퀴즈 행운 나눔, 설 명절을 맞아 (사)순천만나눔재단에서 후원한 떡국 나눔 등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나주시, '노인결핵 전수검진' 실시

경로당·복지관 등 방문 홍보엑스선 검진·객담검사 등

나주시는 지난 19일 남평읍 경로당을 시작으로 읍·면·동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찾아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결핵 전수검진'을 실시한다.

나주시 보건소는 결핵 전수검진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각 읍·면·동 경로당, 복지관, 마을회관 등 노인인시설을 직접 방문해 홍보엑스선 검진, 객담검사 등을 통해 결핵 조기 발견 및 집중치료를 통한 감염병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 달에는 남평읍 지역 노인 850여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다. 결핵 감염은 결핵 환자가 기침 등을 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타인이 호흡할 때 폐로 들어가 균을 증식해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결핵 증상 85%가 주로 폐에서 발생하지만, 15%는 신체 내부 어디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에어컨, 온풍기 등 냉·온방 시설을 자주 사용하는 경로당 등 노인인시설의 경우, 환풍 횟수가 적고 집

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핵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

건강약화에 따른 면역력 결핍도 결핵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기본 수칙은 재채기를 할 때 손수건이나 팔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거나, 꼭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당부하며, "2주 이상 기침·가래·미열·체중감소·수면 장애 등 증상을 나타낼 시 꼭 보건소를 방문해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나주시 보건소는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에 결핵 환자로 등록하고 원치 시까지 질병관리본부 체계적인 매뉴얼을 통해 등거인 및 접촉자 감염여부 확인 등을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또, 이번엔 실시하는 노인전수검진을 통해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나주시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광양만권 기업지원 시책 합동 설명회 개최

광양경제청,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최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직무대리 강효석)은 광양만권 입주기업들을 위한 2018년 기업지원 시책 합동설명회를 22일 14시에 광양만권 입주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정부의 시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광양청과 전남테크노파크가 공동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중소벤처기업부 전남동

리 안전자금,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등 고용 및 인력지원 시책을 중소벤처기업부 전남동부사무소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창업성장 및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등을 설명한다.

또한 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시군 연계?협력기업 육성사업,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사업, 연구개발 공동 활용 지원사업과 지역소요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등을 설명한다.

김승호 전남동부추진본부장

화순군, 아열대 소득 작목 육성 '박차'

모링가·차요테·여주 등 고소득 작목화 실증재배 추진



화순군은 지구온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 지역에 적합한 아열대 소득 작목 발

굴·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 적응성이 강한 아열대 작목 발굴과 작목별 재배 매뉴얼 확립을 통한 안정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최근 3년간 임핀, 오크라 등 4개 작목을 38곳, 2.3ha에 실증 재배를 통해 농가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올해에도 모링가, 차요테, 여주 등 소득 창출이 가능한 아열대 작목을 대상으로 재배기술 정립과 고소득 작목화 육성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화순군 축제 및 시장과 연계한 시식, 관측행사와 더불어 농식품 박람회 참가 등 적극적인 홍보로 아열대 작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소비 시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 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재배기술을 확보해 농가에 보급하고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소비시장 확대로 아열대 작목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회순=박순철 기자

화순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파프리카, 복숭아,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 신암삼